고개드는 민주당-안철수 후보 단일화

입당·무소속·통합…'다양한 방식' 제기

박원순-박영선, DJP 연립정부式 방안 등

"안, 추석전 출마" 경선주자들 움직임 촉각

민주통합당 순회경선이 후반전으로 접어들면서 당내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야권 후보단일화 방식에 대한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추석 전 안 원장이 출마선언을 할 것이란 예상과 맞물리면서 경선후보 진영은 물론 다양한 정파에서 단일화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안 원장의 입당을 단일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민주당 중심의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안 원장의 입당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입당과 무소속 출마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는 절충안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안 원장과의 연대를 염두에 둔 세력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 계열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김기식 의원이 주도하는 시민정치포럼, 김한길 최고위원이 대표인 '내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초계파 모임인 '민주동행' 등이 대표적 그룹으로 분류된다.

◇**민주당 입당 후 단일화**=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정하면 안 원장이 민주당에 입당, 또 한번 단일화 경선을 치르는 방식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설령 안 원장이 경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자당 후보를 배출하는 셈이어서 대선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불임정당'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기성정당 전반이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어서 안 원장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박원순-박영선 단일화 방식**=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후보 간에 실시한 방식이다. 당시 박원순 후보는 경선 승리 후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은 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 형태는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무당파, 중간층을 흡수하는 장점이 있었지만, 민주당 지지층의 균열이 생길 가능성을 있다. 안 원장도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초유의 무소속 대통령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부담이다.

◇**DJP 연립정부 방식**=1997년 대선 때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 간 연립정부를 매개로 후보단일화를 한 방식이다. DJP 연대는 김대중 후보 당선 시 집권 이후 내각제 개헌을 하고 총리를 비롯한 경제·통일·외교 분야의 내각 추천권을 자민련에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부에서 제기한 시민연합정부론과도 비슷하다. 이는 민주당, 안 원장, 진보정치세력이 연합정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단일화 경선을 준비하고 시민내각을 공표한 뒤 대선을 치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합정당 창당 방식**=안 원장이 독자세력화를 준비해 민주당과의 통합정당 출범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원장이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지지층에게 자당 후보라는 안도감을 줄 수 있다. 안 원장 역시 민주당 후보가 단일후보로 되더라도 자신이 통합정당에 남게 돼 지지층 이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선 때까지 창당작업을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관측이 있다. 따라서 대안으로 안 원장이 대선 전 통합정당 출범을 약속하고 실제 창당작업은 대선 후에 진행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정치혁신 최우선 과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재벌·검찰개혁 강력 시사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5일 정치혁신과 관련, "민주당이 먼저 매를 맞고 먼저 바꿔나가겠다"며 정치혁신에 대한 강한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혁신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꼽은 뒤 국회의원 영리행위·겸직 금지·전직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공직자 선출제도 법제화를 통한 공천 금품의혹 근절 등을 약속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사형 집행 논란과 관련해선 "법원 판결이 잘못돼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도 있다"며 "인혁당 사건을 기억하지 않느냐. (재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무고하게 죽었다"면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을 거론한 뒤 "5·16 군사쿠데타를 미화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주변에서 들리고 있다"며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2의 유신을 해야 한다는 소리만 남았다"고 박 후보 진영을 비판했다.

그는 연말 대선과 관련,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으로는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새로운 세상을 이룰 수 없다"며 "변화된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민주정권이 들어서야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개혁 방안도 거론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대검 중수부 폐지·수사권-기소권 분리·국가수사국 설치·검찰 중심인 법무부 체제 개편 등을 소개하며 "정치검찰을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 개혁과 관련해선 "납품단가 후려치기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선 과세를 강화하겠다"면서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순환출자 전면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을 주장했다.

그는 복지 정책과 관련, 국민의 9%인 차상위계층과 약 20%인 비정규직 등 빈곤층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꼭 필요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문재인 "정권교체 하려면 야권후보 단일화 꼭 필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는 5일 "민주당 중심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져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광주 MBC 라디오 '시선집중 광주'에 출연해 "민주당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단일화 연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대선) 후보로 결정되면 지지도가 모이고 시너지효과가 생겨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호남의 역할이 중요하다. 호남이 늘 야권후보의 정통성을 부여해왔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안 원장과의 후보단일화 전망에 대해선 "합의에 의한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쟁을 통한 단일화를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뒷받침을 갖고 경쟁하면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경선 과정의 당내 분란과 관련해선 "송구스럽다"고 자세를 낮춘 뒤 "민주당은 단합과 쇄신만이 살 길이고 이길 수 있는 길이다. 다른 분이 후보가 되면 선대본부장이라도 맡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의 호남인사 소외론에 대해선 "참여정부는 호남의 절대적 지지로 출범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며 "서운했던 점까지 제가 더 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고, 불가피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었다"며 "참여정부가 햇볕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켰지만 송구스럽다"고 피력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안철수 대선 출마 여론 높아졌다

여론조사, 5~6월에 비해 '찬성' 절반 육박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출마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 안부근 연구소가 지난달 31일~9월1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한 결과, 출마 찬성 의견은 48.3%, 반대 의견은 47.8%로 비슷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지난 5월19~20일 주간경향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RDD 방식의 조사에서는 출마 찬반이 각각 40.9%, 49.7%였다. 또 아시아경제와 리얼미터가 지난 6월 9~10일 1000명을 대상으로 RDD 방식의 여론조사에서도 출마 반대가 53.8%에 이르고 찬성이 32.8%에 불과했다. 최근 들어 찬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5월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출마 찬성이 67.2%, 반대가 31.3%로 나타난 점에도 시선이 쏠린다.

윤희웅 KSOI 조사분석실장은 "민주당 지지층 중에 안 원장의 출마를 반대하는 층은 안 원장이 출마할 경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 실장은 그러면서 "이들은 안 원장이 출마할 경우 적극적인 지지층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해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아동 성범죄자 양형 높여야"

여야의 아동·여성 대상 성범죄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은 5일 KBS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 "성범죄자에 대한 실제 양형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현행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성범죄자 형량의 법적 상한은 무기징역까지로 높지만 실제 양형은 약하다"라며 "정부가 (화학적 거세 확대 시행을) 고민하다 19세로 또 제한하는 것 같은데, 어떤 성범죄든 재발 가능성이 높고 스스로 조절이 안 되면 약물로 성욕을 억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최근 2~3년 사이에 제도가 대폭 도입됐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성범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데,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의 불심검문 부활과 사형제 존치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냈다. 신 의원은 "경찰이 우범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일반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불심검문을 안 해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선 신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한 뒤 "사형에 준하는 만큼 형벌이 가해져야 하지만 사형 자체는 반대한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한두 사람 사형시킨다고 성폭력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부동산경매 틈새 노려라!…NPL 투자 '열풍'

부실채권(NPL)

!! IMF때 대박났던 부실채권 다시 인기 !!

!! 근저당권 매입 후 경매건당 수천만원~수억원 수익 !!

NPL이란?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 줬지만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대출채권을 의미하며, 무수익여신 또는부실채권이라불리운다
NPL 투자란?	부동산 담보부 NPL(제1순위 저당권)을 싸게 매입하여 담보물건을 경매에 부쳐 배당받거나 직접 낙찰받아수익을얻는방식이다.
NPL투자의 매력은?	일반경매보다 낙찰이 우월하며, 실투자금이 적고(높은 대출금), 양도세를 내지 않는 등 고수익 투자상품이다.

◑ 제3기 NPL최고전문가 과정 ◐

♣ 개 강 : 9월 11일(화) ♣

*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 오전반(10시), 야간반(7시)
* 교육기간 : 9월 11일~11월 6일 / 2개월과정

실전투자 교수진

이 현 준 교 수

* 한국NPL경제연구소소장* 법무법인『바른길』자산관리팀장
* 다와옥션NPL실전투자교수
* PMG(박문각)부동산스쿨(강남,종로)NPL전임교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실무교육교수

특강 : 이영준교수("부실채권과경매이야기"저자, PMG(박문각)부동산스쿨NPL전임교수)

◈무료 공개특강◈

내용	"NPL의전망과수익구조"
일시	* 9월7일(금) : 저녁7시/ * 9월8일(토) : 오전10시
혜택	* 사전예약및당일접수시 ☞수강료10%할인/교재20%할인

Dawa (주)다와옥션 ☎ (062)352-8589(代)

『법원경매』의 길잡이! www.dawaauction.co.kr

남구 월산동 돌고개역 1번 출구 / 신한은행 4층(구.전남경찰청 4거리)

이지공인중개사

임야, 토지, 전답

▶광주 동구 선교동 벤처배후단지 대지1014평(3353㎡)사정상 급매 대로 35m 도로접함, 투자가치높음. 매가21억
▶화순군 이양면 초방리 산14-1임야77,727㎡(23,512평) 매가 평당5천원
▶광주 서구 매월동 자연녹지 46,596㎡ (1,412평) 매가평당100만
▶나주시 문평면 잡종지 6차선 도로450M 접함 15,638㎡ (4,730평) 매가 평당20만원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임야 5만천평, 평당1만원 절터 및 연수원부지적합
▶광주 서구 매월동 공구상가 부근 답8,433㎡ (2,550평)매가평당90만
▶장성 서삼면 대곡리 대528평(계회관리지역 도로여건좋음)
▶화순 동면 서성리 호수부근 전원주택 펜션부지(전망 아주좋음)대210평 매가 평당70만
▶무안군 운남면 연리 계회관리지역 2700평 2차선 도로 120m접,지대높음 매가평당15만

기타물건 다량보유

매 매, 교 환 (토지, 상가, 임야)

▶장성 남면 2종주거지역 대지660㎡(200평)평당50만 창고주택공장적합
▶담양 봉산면 대추리 과수원부지 대형차량 진입가능, 창고 공장,전원주택 적합
▶함평 나산면 초포리 12,990㎡(3,930평)도로접,공장창고 전원주택등적합
▶나주군 봉황면 덕곡리 2차선 도로접, 전,임야6,100평 매가 1억5천만

광주 동구 수기동 대지 590평 평당400만 중심상업지역 위치좋음

▶곡성군 오산면 조양리 매실밭 1,392㎡(421평)년수익 5~6백만, 주말농장 전원주택 가족묘지등 매가3,400만
▶장성읍 덕진리 대로변 공장설립허가지역 창고, 전원주택,공장등적합, 전10,100평 매가 평당15만

상가 주택등

▶장성 북하면 약수리 백양사 입구 모텔 및 식당 대800평 현성업중 매가17억
▶서구화정동 염주사거리부근 상가주택 준주거지역 대90평,건148평 보7천만 월540만 매7억
▶서구 풍암동 상업지역 최고상권 대121평 건524평,보1억8천만,월수1150만,매18억5천만 지하1 지상5층
▶광산구 흑석동 대로변 상가 매가 22억(융,보5억포함)월수익1400만
▶동구대인동 대로변 사거리코너상가 매가12억5천만(융,보5억2천포함)월수익1,100만
▶광산구 흑석동 월곡동 우산동 수완동 신가동등 원룸매매(5억~8억선다량보유)

전 화 : 062-268-2834
H P : 010-6460-2834

수익성 최 상

① 키즈테마카페임대
• 카페, 파티룸, 뷰티샵등
• 면적 : 2,400㎡(725P)
• 주차 500대
• 보증금 3억/월1,800만

② 예식장 상설뷔페임대 돌잔치,각종행사전문점
• 면적 : 2,824㎡(854P)
• 주차 500대
• 보증금 4억/월2,200만

③ 도심형 생활주택 메디컬센터부지
• 961㎡(290P)
• ㎡당 145만
• 150세대, 15층
• 14억 투자= 수익11억

④ 25억=월2,400만
• 대지1,342㎡ 건물 5,700㎡
• 보증금 4억 / 월 4,400만
• 매매65억

010-3666-4646

경매투자

1. 경매 배우면서 수익 내실분
특수물건/NPL물건만 전문 취급
교육비/임장활동비 등 회비 550만원

2. 매수 입찰 대리
정확한 권리분석 → 최저낙찰
빠른 명도 → 최상의 대출
임대 → 매매까지

3. 경매물건에 투자 하실분!
제1순위 근저당으로 법적 보장
년 10~30% 최고의 수익률
단독 공동투자 가능

(주)오천경매 H.010-3605-500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공증문서 ■대여금
■법원판결문 ■운송료
■각종채권 ■구상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